

영국과학사학회 여름모임

성 영 곤
서 울 대

서독에서 열린 국제과학사학회에 참석하기 전 약 20일간 영국에 머물렀다. 주로 케임브리지에 있었지만 옥스퍼드, 런던 등에도 2,3일씩 머물렀고 에딘버러에도 닷새동안 다녀왔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근처에 머물다가 원산에 해당될 에딘버러까지 다녀온 이유는 여기서 영국과학사학회(British Society for the History of Science)의 여름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9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 모임은 BSHS와 에딘버러대학의 인문학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the Humanities)와의 공동주관으로 스코틀랜드 왕립박물관과 그에 맞붙어 있는 대학건물(Old College의 New Senate Room)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의 주제는 “진화와 혁명”이었는데 “진화”와 “혁명”에 각 하루씩을, 기술사 분야에 한나절을 배정하였고 전학관광과 영화상영, 두 번의 특별공개강좌가 있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숙소배정, 식사 등에서도 대학당국과 박물관의 배려를느낄 수 있었다.

화요일인 7월 25일 숙소(에딘버러대학에서 운영하는 Pollock Halls)에 짐을 풀고 5시쯤 리셉션 장소인 박물관에 도착했다. 고색창연한 외양과는 달리 박물관 내부는 밝고 깨끗했다. 등록을 하고 때맞추어 박물관이 마련한 2개의 특별전시, “과학의 혁명”(Revolutions in Science)과 스코틀랜드 민속기술전시인 “국가의 부”(The Wealth of a Nation)를 둘러보았다. 박물관 로비 곳곳에서 진행되는 담소에 끼여들 형편도 아니어서 전시회 담당의 늙수그레한 직원들과 이야기했다. 독특한 억양으로 스코틀랜드의 특색을 강조하는 것을 들으며 지방색 정도가 아니라 야에 만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7시쯤 학회 회장이며 박물관장인 앤더슨(R.G.W. Anderson)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고 이어 와릭(A.C. Warwick)의 「과학사교육」(*Teaching the History of Science*) 출판기념 인사가 있었다. 한국에서 앤더슨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을 못받고 떠나 케임브리지에 있는 동안 와릭을 소개받고 그를 통해 참가신청을 했는



스코틀랜드 왕립박물관의 특별전시장에서

데 그때 이 책이 BSHS의 주관 하에 나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영국학회 역시 과학사의 보급과 교육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프로그램은 빈틈없었다. 영국체류 동안 보아온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기획전시와 마찬가지로 이 모임의 주제 역시 프랑스혁명 200주년에 맞추어 "선정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프랑스의 뭍으로 "화학혁명"을 택하고 이를 "다윈 이전의 진화론"과 대비시키고 있었다. 전 유럽적인 붐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프랑스를 중심한 유럽대륙과 스스로를 구별해 온 영국적 전통이 강하게 느껴졌다.

26일의 진화론에 대한 발표는 리내우스의 진화개념이나 라마르크 설의 수용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윈니즘의 기원중 하나로 18세기 스코틀랜드 과학자들을 살핀다든지, 험프리 데이비의 지질학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문제를 규명한 비교적 실증적인 발표들과 함께, 진화론의 배경으로는 너무 걸맞지 않는 빅토리아조 영국을 과학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발표나 기형인들에 대한 해부학적 관심이 내포하고 있던 정치-진화론적인 측면을 규명한 발표, 그리고 문명사에 대한 19세기적 관심이 진화개념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를 살피는 등 소위 외적 접근적인 발표들이 있었다.

이날의 발표자는 사정에 의해 라마르크 발표를 대독시킨 이탈리아의 코르시(Pietro Corsi)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미권이였다. 특히 영국학자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들을 알아듣는 데 애를 먹었지만 내용 자체는 대개 이해되었다. 특이한 것은 오스트렐리아 울롱공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 어떻게 발음하는지 직접 물어보았지만 기억이 확실치 않다)의 리처즈(Evelleen Richards)의 기형인 해부에 대한 발표였다. 뱀갈인, 아즈텍인 등과 선천적 기형인에 대한 비교해부학적 관심이 19세기 중엽의 유럽에 이미 유행했다면 이것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우생학으로 연결된 Social Darwinism의 한 뿌리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저녁에는 에딘버러대학의 더들리-에드워즈(Owen Dudley-Edwards)의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제목은 "혁명의 진화"(The Evolution of a Revolution)였다. "화학혁명"의 부제도 "화학: 혁명이냐 진화냐"(Chemistry: Revolution or Evolution?)라는 말장난 같은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영국인들은 "혁명"보다는 "진화"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어 인체해부를 할 시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외과의사가 겪는 갈등을 그린 영화상영이 있었다. 의사의 죽음으로 끝내면서 "이런 희생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한 자막이 다소 거슬렸지만 빅토리아기의 도덕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7일 오전에는 런던, 맨치스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다룬 발표와 영국의 관세장벽과 기술유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19세기 영국과 현재 미국과의 비교연구적 관점이다. 초기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다가 지금은 뒷전으로 밀린 영국으로서는 의당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대영제국의 색바랜 깃발을 아직도 붙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후의 뉴 라나크(New Lanark) 관광은 영국자본주의가 18세기 말에 이미 담고 있었던 하나의 이상을 일깨워 주었다. 에딘버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클라이드강 계곡 깊숙히 자리잡은 이 작은 마을에서 로버트 오웬이 초기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험했던 것이다. 오웬과 그 장인 데이비드 테일이 살던 두채의 집이 따로 있고 4,5층 규모의 연립주택들, 은행, 공판장 등이 제법 번듯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클라이드강의 수력을 이용한 공동작업장과 학교건물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1968년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다니 1785년 테일이 건립할 당시의 마을모습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장 구석에 놓인 아크라이트 방직기는 당시 것 같았다. 1974년 이래 라나크 보존 위원회가 이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0년쯤 뒤에 대덕단지

나 월성원자력발전소 같은 곳이 현재의 라나크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역사학도로서의 감회가 새삼스러웠다.

마지막날 분위기는 활기찼다. 3, 4일 같이 지내다 보니 티 타임 같은 매개인적 대화도 많았다. 인쇄된 '참석자 명단은 나를 포함해서 80여명이었지만 드나든 사람까지 약 1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진화론과 관련해서 제국주의사에 관심있다는 인도친구 등 동양인도 몇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대학원생을 포함해 5명 있었다. 물론 태반은 영국사람들이었는데 교사, 엔지니어 등도 있었고 부부동반한 사람들도 제법 되었다.



리나크의 오웬 저택 뒤에서

이날 오전 첫 발표들에서 이미 토론의 여지가 생겼다. 도노반(Arthur Donovan)이 겔락의 견해를 좇아 1772년을 라바지에의 결정적 해로 인정한 반면 예일대학의 홈즈(Frederic L. Holmes)는 라바지에의 업적을 화학내적인 발전과정에서 평가함으로써 발표자들끼리 질의토론이 시작되었고 청중질의도 많았다. 프랑스권이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노반측 주장이 소수의견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토론은 오후발표가 끝난 뒤에도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정도였다. 그외 군수산업 행정가로서의 라바지에, 명명법체계 등에 대한 발표 등 라바지에 일색이었다. 예외적으로 젊은 프랑스학자가 푸르크와 등 당대 화학자를 다루었지만 그 발표의 요지는 길리스피의 “자코뱅자연철학”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번 발표들이 최근 동향을 다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과학사학계가 쿤, 길리스피, 겔락 등의 패러다임 안에서 움직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은 서독에서의 국제과학사회의 발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저녁의 특별연사는 의학사가로 널리 알려진 포터(Roy Porter)로, 말론 브란도 같은 인상에 상당히 정력적인 사람이었다. 돌팔이 사기꾼으로 지탄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프로이트적인 애정요법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제임스 그레이엄에 대한 강연이었다. 가끔씩 혀를 길게 내어 입술을 핥으면서 열강을 했는데, 완전히 사로잡힌 청중들을 보면서 그레이엄이 저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원고도 없이 한시간내 청중들을 웃게 만든 더들리-에드워즈나 포터를 보면서 대중강연의 재능은 따로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대중강연이 끝날때쯤 이번 모임의 주관자인 인문학고등연구소의 존즈(Peter Jones)가 인사말을 했다. 품에서 무엇을 꺼내 읽기에 축전인가 했는데 뽀뽀가 당시 왕립학회의 초청에 대해 보낸 답신이었다. 200여년 전의 내용이 오늘 이 모임에도 해당된다면서 영국과 프랑스 과학계의 오랜 우정을 강조했다. 이번 모임의 주제선정 의도를 확인시켜 준, 영국신사다운 깔끔한 마무리였다. 이어 열린 BSHS의 연례정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은 끝났다.

덧붙여 말한다면 이번 모임 참석은 여행으로서도 멋진 것이었다. 동전을 넣어야 작동하는 실내 히터를 키고 여름 한창 때를 넘긴 일은 차라리 사치라 하더라도 숙소에서 발표장까지 걸다가 시가지도를 꺼내 유적들을 확인하노라면 길 잃었느냐고 묻던 사람들의 친절과 런던과 비교해 에딘버러가 더 좋다면 신나 하던 모습들, 스코틀란드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 것 등은 에딘버러가 아니었으면 경험못할 일들이다. 비록 스코치 위스키 공장도 못가보고 호수지역 도보여행을 못한 것이 끝내 섭섭하더라도 말이다.